

끝내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외의 《허울뿐인 세계화》를 읽고

김 균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화 추세를 한꺼풀 벗겨보면 그것은 국가간 경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아직도 여전한 국민국가의 시대에, ‘지구적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커다란 희망을 걸면서도 아직은 그것이 맹목적 성장의 주술에 빠진 산업사회와 근대문명을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의 싹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연구의 영역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게 못마땅해서 경제학 바깥을 늘상 걸논 질해왔지만 내가 경제학자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쪽 끝에는 고만고만한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몇해 전 어느 세미나에서 몇몇 사회복지학자들과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실시와 관련된 주제였는데, 국가재정도 함께 고려해서 복지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우리의 끈질긴 주장에 다소 흥분한 한 사회복지학자가 경제학자는 자신들의 적이라는 거친 말을 내뱉었고, 우리 중 누군가는 도덕적 의무감만으로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요지의 반론을 완곡하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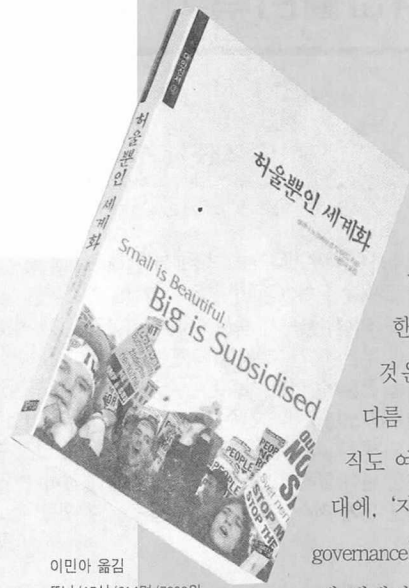
세계화의 부작용 고발해

그 때 사회복지학자들의 적대감이 내게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시장사회가 인간의 전반적 삶을 천박하게 만들고 수많은 시장 열패자를 창출하는,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에서 볼 때 커다란 결함이 있는 사회형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근대문명의 틀 안에 갇힌 우리로서는 시장을 주어진 조건이나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이었다. 다른 문명적 대안이 현실세계에 그 기미를 드러내지 않는 한, 오히려 시장 속에서 사유하고 시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순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으며 시

장 바깥에서 사고하는 것은 유토피아적 공상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동안 효율성과 형평성이 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고민하고 탐색해 왔던 것이다. 그 세미나 이후 사회복지학자들의 적대감은 먼 시절의 기억처럼 문득문득 떠올랐다. 어쨌든 그들이 옳으며 내가 너무 쉽게 시장의 세례를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허울뿐인 세계화》(뜨님)란 책을 읽게 됐다.

속표지 정보에 따르면 이 책은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와 ISEC(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가 함께 쓴 계몽적 저술이다. 이 책은 전세계의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세계화의 주역은 거대기업이고,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이 거대기업들을 엄청난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또 거대기업은 선거자금 등을 통해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고발한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작은 공동체,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부를 총동원하고 그 정부들이 모여 세계화의 도전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통제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나는 교육·인프라·연구개발 등의 공공정책은 거대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거대기업이 사실상 세상을 지배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고, 작은 공동체 속의 삶이 더 인간답고 아름답다는 판단에도 동의한다. 그러



이민아 옮김
뜨님 / A5신 / 214면 / 7000원

나 세계화 추세를 한꺼풀 벗겨보면 그것은 국가간 경쟁에 다름 아닌데, 따라서 아직도 여전한 국민국가 시대에, ‘지구적 통제’ (global governance)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커다란 희망을 걸면서도 아직은 그것이 맹목적 성장의 주술에 빠진 근대문명을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의 싹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는다.

시장의 극대화가 불러올 폐해

경제학자의 현실주의는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 차원의 이성적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역사학자 홉스봄은 20세기 자본주의 문명의 경제적 팽창과정은 자신이 서 있는 생태적·사회적 기반의 부식 과정이었다고 평가했고, 인류학자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은 인간의 유적 본질인 공동체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시장의 극단화는 궁극에는 공동체의 반격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의 견해대로 21세기에 들어선 인간사회는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으며 또 바뀌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때 경제학자는 아마도 사회복지학자의 적일 것이다.

172쪽의 ‘18세기의 최초의 정신병 의사’는 대단히 상징적이다. 이 의사는 “진단할 사람을, 한 쪽에는 수도꼭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결레와 양동이 있는 방에 가두었다. 그 다음 수도꼭지를 틀고 지켜보았다.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대결레와 양동이를 달려갔고, 정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겼다.” 자본주의 문명의 “수도꼭지는 너무 오랫동안 틀어져 있고,” 이미 경제학자의 “대결레와 양동이는 넘쳐나는 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는지도 모른다. ●